



금강산

12

2025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5 ISSN 1727—9062

루계 제436호 월간

2025년 12월호

표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모습에 반해
 지난 10월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재중조선인
 총련합회축하단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찾았다.
 축전 지차에 올라 해안지대의 풍치와 조화를
 이루며 현대미를 보여주는 건물들을 돌아본 김영녀
 부의장이 그 모습에 반해 염지손가락을 내보이였다.

사진 김영호

2 || 우리 당의 숙원이 떠올리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실체들

일화

6 || 위민현신의 나날에

7 ||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담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8 ||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수필

10 || 흰눈

12 || 인민을 위한 한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13 || 수지공예 《립마공성》

14 || 크나큰 행운

대담

15 || 인민을 위한 법

좌담회

16 ||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
 품성의 소유자들로

고국방문

18 || 계속 오고만 싶은 곳

인상기

21 ||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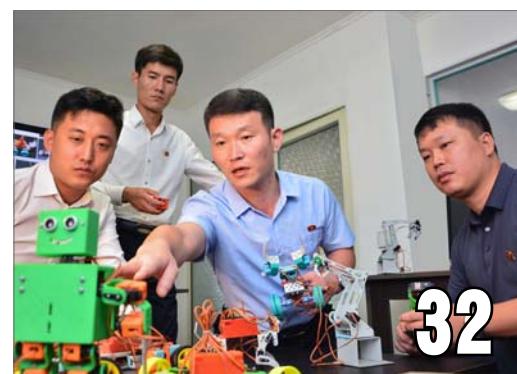
21 ||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10



18



32



36



49



53

애국의 넋은 대를 이어
 22 || 그가 선 자리

고향소식
 24 || 떠나고싶지 않은 고장

27 || 한해의 취재수첩을 펼치고
 28 || 생산활성화의 비결

30 ||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31 || 래일을 설계해간다

32 || 교육용로보트제작집단

34 || 기억명수들을 키워내는 박사

36 || 희망과 재능을 꽂피우는 곳

40 || 장애자탁구선수들

42 || 캄보자의 무도인들이 잊지 못하는 사범부부

44 || 《주간의 피로를 어떻게 푸시는지요?》

47 || 단골손님이 늘어나는 양복점

소식

48 || 우리의 문화를 장려하는 계기로 된 전시회

49 || 국경에 대한 자부심을 더해준 품평회

력사인물

50 || 고구려의 장수 부분노

지명유래

50 || 넝원군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51 || 거산성

력사이야기

52 || 서희장군의 대담한 외교전

53 || 세계지질공원 백두산지구 (4)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우리 당의 숙원이 떠올리는 사회주의문명국의 실체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10년의 절반도 안되는 사이에 조국
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조차 너무나 몰라보게
많아도 변했다.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개최되었던 2021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5년간은 긴 세월이 아니였지만 우리 조국은 그야말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였다.

수도와 지방에 인민들 누구나가 반기는 실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다.

강산이 몰라보게 변한만큼 사람들의 정신문화적 수준 또한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지난 5년간의 변화는 그 어느것이나 다 사회주의 문명국건설에 지향되어 있었다.

조선로동당의 역사에 사회주의문명국이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된 것은 2012년 4월이다.

그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도 끊임없는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여나갈데 대해 밝히시였다.

다음해인 2013년 새해 첫아침에 하신 신년사에서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놓을데 대하여서와 사회주의문명국에 대한 정의도 구체적으로 내려주시였다.

사회주의문명국은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魄,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나라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나라이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전위거리

그이께서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우에 나라의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마식령스키장이며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과학기술전당과 같은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은 당 제8차대회 이후에 더욱 줄기차게 다그쳐졌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



평양종합병원

농촌을 문명하고 부유하게 전변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교육과 보건을 발전시켜 중앙이나 지방이나 할것없이 사회주의 교육제도와 보건제도의 우월성이 실지 인민들의 피부에 가닿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을 밝혀주시였다.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는데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살림집문제라고 할수 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021년 3월 23일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장에 나오시여 《5만세대 살림집건설로 우리 수도를 다시한번 웅장하게 변모시키자》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전국적으로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내밀면서 우리 수도에만도 5만 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우며 이를 위해 매해 1만 세대씩 건설할것이라고 하시였다.

당과 국가가 펼치는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은 어떤 경제적리득을 위한것이 아니었다.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였다.

그때로부터 어디서도 들어본적이 없었던 《새집들이 계절》, 《새집들이 풍경》이라는 시대어가 태여날만큼 살림집건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수도 평양에만도 몇년안팎에 송화거리, 경루동, 화성거리, 대평지구 살림집, 림흥거리, 전위거리 등이 인민의 리상거리로 일떠섰다.

우리 시대 문명개화에 대한 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인민들의 제일 큰 화제거리로 매일 같이 이 나라 방방곡곡을 환희롭게 들끓게 한것은 지방이 확연하게 변하고있다는것이였다. 그리고 최근년간 제일 많이 전해지고 제일 광범하게 보도된것이 다름아닌 사회주의농촌의 새집들이소식이였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이 선포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들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옹대한 설계도가 펼쳐졌다.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과 원대한 지방발전 정책에 의해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 지방공업 공장들과 농장도시들, 어촌마을들을 비롯하여 우리식 새 문명을 상징하고 체감케 해주는 실체들이 련이어 착공, 준공되면서 지방인민들에게 기쁨과 활력을 안겨주고 그들을 개변시켜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훌륭한 새 살림집에서, 현대적인 공장과 일터에서 새 생활, 새 문명을 향유하는

근로자들이 갈마반도의 명사십리에 일떠선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 였다.

삼지연지구의 산악관광개발을 비롯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새롭게 개척되고 비상히 넓어지는 다양한 문화생활령역은 더욱 윤락하고 아름다워질 우리 인민들의 휘황한 앞날을 확신시켜주었다.

그런가 하면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온 나라에 그물망처럼 연결된 과학기술보급기지들에서 인민들은 문명의 창조자로 준비되어가고 있다.

교육혁명의 거창한 불길속에 교육조건과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외진 산골마을의 자그마한 분교들까지도 도시학교 부럽지 않게 개변되고 있다.

평양종합병원과 강동군병원이 보건혁명의 원년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실체로 일떠서고 구성시, 통강군에 현대적인 병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보건토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였다.

이렇듯 지난 5년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스러운 성과는 하늘이 가져다준것도,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이루어진것도 아니였다. 조건이 특별히 좋고 모든것이 풍족하여서도 아니였다.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에게 하루

빨리 사회주의문명을 안겨주시려는 확고한 결심과 강렬한 의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마련된것이였다.

지난 6월 사회주의문명개화의 새 경관을 펼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해안관광도시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인민을 위해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우리 당이 오래동안 공력을 들여온 숙원사업이 장쾌한 현실로 결속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의 새 생활, 새 복리를 위한 희한한 실체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른 우리 시대 사회주의문명개화기가 바로 조선로동당의 숙원사업에 그대로 비껴있다.

우리 인민을 억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럼없이 잘살게 하는것,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숙원이야말로 인민을 문명과 행복의 절정에 떠올리는 원동력이였다.

건국의 첫 세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에 《온 세계 앞서나가리》라는 표현으로 품었던 그 열망이 우리 시대 문명개화기와 더불어 머지않은 앞날에 현실로 펼쳐지게 될것임을 조국 인민 누구나가 믿어마지 않고있다.

글 연옥

사진 리진혁, 황정혁, 조선중앙통신



강동군병원

위민현신의 나날에

강조하신 문제

2015년 2월 어느날 몸소 비행기를 타시고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부감하시며 공사와 관련한 가르침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다음날 건설현장을 찾으시였다.

미래과학자거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사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며 그이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는 봉사망 형성이였다.

봉사망형성계획에 대해 묘해하신 그이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는 어디까지나 주택지구이므로 리발소, 미용원, 세탁소, 옷수리소, 구두수리소 같은 편의봉사시설들과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기관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주택지구에는 목욕탕과 야국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건설자휘부와 해당 부문에서 미래과학자거리 봉사망배치계획을 검토해보고 바로잡을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언제나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그이의 이런 숭고한 뜻에 발들려 미래과학자거리는 각종 봉사망들과 편의시설들, 휴식터들이 조화롭게 들어앉은 멋쟁이거리로 일떠서게 되였다.

인민의 재부로 길이 남을 창조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년 8월 말 함경남도 함주군 지방공업공장건설현장을 현지에서 묘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지방공업혁명의 첫해부터 전국의 20개 시, 군들에 일떠서는 산업시설들은 우리식 문명과 발전의 직접적표현의 실체들이며 이는 우리의 량심과 리상, 우리의 분발력과 투지 그 모든것이 그대로 비껴있는 축도이라고, 인민의 재부로 길이 남을 창조물에는 사소한 결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부문에서 경쟁을 하나 조직하여도 그것이 사회주의문명개화를 착실히 추동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기능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다양한 기능경기나 기능공양성, 질체고, 환경정리와 같은 실리있고 의의있는 주제의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몰라야 한다시며

지난 8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완공된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방발전구상에 따라 군인건설자들은 착공한지 불과 190여일만에 락원포지구에 현대적이며 선진적인 생산시설들을 갖춘 양식사업소와 소총, 단총의 각이한 살림집들, 편의봉사시설들이 주변의 자연환경과 특색있게 조화를 이룬 어촌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이날 그이께서는 한폭의 그림마냥 펼쳐진 락원포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전국적으로 제일 작은 군에 속하고 경제적토대도 취약하던 락원군에 이런 훌륭한 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마을이 일떠섬으로써 금후 이곳 군은 발전전망이 좋은 군으로 되게 되였다고, 명실공히 《락원》이라는 명칭과 함께 당당히 불리울수 있게 되였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전국적으로 제일 뒤떨어졌던 군을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에 경제적토대가 튼튼한 군으로 발전시킨 거창한 창조의 속도는 새시대 지방공업혁명과 공화국의 장성발전사에 특기될 것이며 이러한 눈부신 전진속도로 내닫는다면 우리 국가는 머지않아 전국의 위대한 전변을 맞이하게 될것이며 이것은 곧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 우리는 절대로 만족을 몰라야 한다고, 오늘 여기에 일떠선 생산건물들과 살림집들이 훌륭하다고 하여도 래일은 이를 증가하는 더 훌륭한 기념비적실체들이 탄생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 * *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담보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이 그 어느때보다 거창하게 진행되고있다.

수도와 지방들에서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살림집 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는가 하면 해마다 지방공업공장들과 현대적인 보건시설, 종합봉사소, 량곡관리시설들이 자기 지방의 특색에 맞게 일떠서고있다.

나날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개선되고있는 것은 물론 온 나라에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담보하는 요인들이 마련되어있다.

그것은 우리의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이다. 사회주의문명국은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이다.

사회주의문화생활을 위한 조건과 환경에는 해당 사회의 물질정신적수단, 생태환경 등이 포함된다. 학교, 극장, 병원, 체육시설과 같은 문화생활에 필요한 물질정신적수단들과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태환경은 높은 생산력에 의거하여야 원만히 마련될수 있다. 이러한 물질기술적 수단과 높은 생산력은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해서만 보장될수 있다.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로서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부문구조, 현대적기술에 의한 인민 경제의 장비,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기지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남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조건, 환경을 확고하게 보장해주고있다.

또한 불쾌의 군력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유리한 평화적환경을 확고하게 담보한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은 그를 반대하는 계급적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한다. 군력이 약하면 문명국건설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킬수 없으며 문명한 생활은 고사하고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문명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는데서 군력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의 군력은 불쾌의것으로 다져졌다.

뿐만아니라 온 사회에 넘쳐흐르는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도 문명국건설의 담보로 되고있다.

그리나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담보하는 요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령도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문명국에 관한 탁월한 사상리론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를 선진적인 높이에 올려 세워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으며 수도뿐만 아니라 모든 도, 시, 군들에서 거리와 마을, 조국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오늘도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살림집 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파제로 내세우시고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로고를 바쳐가고계신다.

하여 조국땅우에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사회주의문명을 누리는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아가고있다.

글 김슬기

사회주의문명국

사회주의문명국은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나라이다. 사회성원들이 지닌 문화지식과 체력, 도덕수준은 나라의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사회주의문명국은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이다. 사람들의 문화생활조건과 환경은 해당 국가의 문명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된다.

사회주의문명국은 또한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나라이다. 사회에 어떤 생활기풍이 확립되고 어떤 사회적환경과 분위기속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가 하는것도 해당 나라의 문명의 높이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된다.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전호에서 계속)

(육체적 불구에 정신적 불구까지 겹치였으니 저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인간인가. 색안경으로 밀정들의 목표물이 될수 있는 애꾸눈을 가리우고 혁명을 위해 투신하는 그 기개야 물론 찬양받을만 한것이지. 그 기개에 전전한 넋까지 담겨져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어떻게 되어 저 사람의 정신은 저렇게도 참혹하게 병들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보다 음성을 더 낮추어 조용조용 그를 타일렀다.

《동무는 민족주의와 <민생단>을 동일시하고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그 량자를 감히 한 천평우에 올려놓을수 있겠소. 박석윤이나 조병상, 전성호와 같은 몇몇 민족주의자들이 발기인이 되여 <민생단>을 조직했다고 해서 민족주의와 <민생단>을 동일시하는것이야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삼단론법이 아니겠소. 내가 알기에는 동무도 처음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주관하는 단체에 들었다가 공산주의운동으로 방향 전환을 한것 같은데 그것을 근거로 삼아 동무에게 <민생단> 감투를 쐬우면 납득이 가겠소? 어떻소?》

김성도는 《그거야 어떻게…》 하면서 말끝을 얼버무리였다.

나는 그가 반성해볼수 있는 여유를 좀 주었다가 조리있게 설복을 계속하였다.

《동무가 상부라고 한것은 동장영서기를 넘두에 두고 한 말같은데 나는 그가 그렇게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만일 동장영서기가 실정을 잘 몰라서 일시적인 편견이나 오해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린다면 조선의 물정을 잘 아는 동무들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가 옳은 리해를 가질수 있도록 조언을 주어야 하지 않겠소.》

김성도는 그 말에도 역시 뚝뚝부답이였다. 체포당했던 2중대의 대원을 데리고 지휘부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나는 김성도가 가련하다는 생각에서 좀처럼 벗어날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숙반공작을 진두지휘하기 전까지는 리론투쟁때문에 여러번 충돌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그를 불쌍하게 여기였다.

그러나 김성도가 《민생단》숙청의 간판밑에 견실한 혁명가들을 무수히 살해하는것을 보고서는 그를 더는 동정하지 않았다. 후날 그자신도 결국은 《민생단》감투를 쓰고 처형되었다. 테로는 테로한테 망하고 좌경은 좌경의 심판대에서 죽는다는것, 신념과 주대가 없이 간에 불었다 셀에 불었다 하는 사람에게 차례지는 운명은 자멸이라는것이 수십년에 걸치는 동란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내가 얻은 또 하나의 인생체험이라고 할수 있다.

3월초순에 마촌을 떠나 온성군 타막골 대안에 도착한 국내진출대오는 솔풀이라는 곳에 숙영지를 정하고 온성땅에 침투한 선발대를 기다리면서 한주일가량 이 일대를 혁명화하여 반유격구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낮에는 송동산서쪽기슭에 가서 전투훈련을 하였고 밤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속에 지하조직을 꾸리는 일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만주국의 말단행정책임자들인 십가장, 백가장들과의 사업도 하였다. 우리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고 혁명군대의 복무 조례에 맞게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였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에 대해서는 매우 깨끗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유격대원들은 그때 솔풀에 머물러있으면서 농민들의 일손을 많이 도와주었다. 어떤 대원들은 산에서 싸리나무를 해다가 주인집울타리까지 고쳐주었다.

박영순의 회상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도끼이야기도 바로 우리가 이 마을에 주둔해있을 때에 생긴 일이였다.

어느날 나는 중국사람인 주인집 로인부처의 일손을 덜어드리려고 도끼와 물초롱을 들고 두만강가로 나갔다. 이 지방주민들은 겨울에 두만강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도끼나 곡괭이 같은것으로 얼음을 까고 구멍을 낸 다음 초롱에 물을 펴 가지고 돌아오면 그것이 곧 음료수가 되었다.

나도 그런 얼음구멍을 내려고 도끼를 들고 나갔다. 그런데 얼음을 다 깨내려갔을 때 그만 자루가 빠지면서 그 구멍속에 도끼가 미끄러져 들어갔다. 긴 장대기를 가지고 몇시간동안 강바닥을 훑어보았으나 도끼는 좀처럼 나지지 않았다.

나는 주인집로인에게 도끼값을 후회 치르어 주고 재삼 사파하였다. 로인은 대장어른께서 새벽마다 자기네를 도와 물을 길어주신것만도 고맙고 황송한 일인데 이 늙은것이 힘이 없어서 혁명군에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도끼값까지야 어떻게 받겠는가고 하면서 굳이 사양하였지만 나는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이 고장을 떠나가 버리면 내가 대장으로서 혁명군의 규률을 위반하는것으로 되니 나를 생각해서라도 그 돈을 받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로인에게 값을 넉넉히 치르어주었지만 내 머리에서는 얼음구멍에 빠진 그 도끼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아무리 많은 돈을 깊어

주어도 손때묻은 연장을 잊어버린 주인들의 아쉬움이야 어떻게 가셔질수 있겠는가. 그래서 1959년 봄에 항일무장투쟁전적지답사단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떠나갈 때 그들에게 량수천자의 그 로인을 만나면 나를 대신하여 사파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답사단이 량수천자에 찾아갔을 때는 유감스럽게도 그 로인이 이미 고인이 된 뒤였다.

두만강을 건는 우리일행이 선발대의 안내를 받으며 왕재산마루에 오른것은 오후 4~5시경이였다.

그때 륙읍지구에서 온 혁명조직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산릉선파 이깔나무수림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를 맞이해주었다.

나는 애어린 참나무들이 빼곡이 서있는 그 산마루에서 한참동안 주변의 풍경을 부감하였다. 10년이면 장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이 고장의 일각은 3년도 되기 전에 옛 모습을 바꾸고 있었다. 두루봉에서 국내당조직을 무을 때 볼수 없었던 탄광의 벼력더미도 새로 생긴 풍경이였고 웅기(선봉)–온성선을 타고 달리는 편차 역시 1930년 가을이나 1931년 봄에는 볼수 없었던 온성의 새 모습이였다.

산천과 함께 사람들도 성장하고 혁명도 전진하였다. 우리가 이 고장을 다녀간 후 륙읍일대와 그 주변에서는 새로운 반일혁명조직들이 련속적으로 태여나 활동을 개시하였다.

륙읍지구의 투사들은 치안유지를 담당한 일본군부와 경찰수뇌들이 국경경비의 만전을 자랑하는 조국의 북변땅에서 혁명조직이라는 거대한 강철그물로 적의 통치기구를 포위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수 편

흰 눈

수도의 거리마다 흰눈이 내리고 있다. 송이송이 내리며 온 강산을 포근히 덮는 흰눈.

우리 인민 누구나 중엄한 마음으로 들어서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도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다.

흰눈을 바라볼수록 나의 마음은 절로 뜨거워진다.

예로부터 희고 깨끗한것을 좋아한 우리 인민은 흰눈을 순결함과 정갈함에 비기며 그에 사랑과 정을 담아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였던가. 흰눈이 인민의 마음 속에 그리움의 상징으로 자리잡은것은.

아마도 그것은 눈덮인 백두밀림에서 탄생하시여 눈보라소리를 자장가마냥 들으시며 성장하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2011년 12월 사랑하는 인민과 영결하신 그날부터였으리라.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고 위대한 장군님 인민을 위한 길에서 너무도 많이 맞으신 흰눈이였다.

언제인가 눈이 내리던 날 어느한 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하였던 그곳 일군은 그이께 목메여 이렇게 날씨가 춥고 눈내리는 날만은 현지지도를 하시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아뢰였던적이 있다.

말풀을 채 맷지 못하고 눈굽을 적시는 일군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이렇게 자주 다녀야 모든 일이 잘될수 있다고 하시며 혼연히 웃으시였다.

인민이 바라는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하늘의

별을 따와야 하는것만큼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기어이 풀어주시면서도 그이의 안녕을 바라고 바라는 인민의 간절한 소원만은 언제 한번 받아들인적 없으시였으니 오히려 그 소원을 자신에 대한 밀음과 기대로 간주하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 까지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그이께서 생애의 전 기간 현지지도하신 단위 수와 로정거리는 연 1만 4 290여개, 167만 4 610여리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 인민 누구나 저 하늘에서 내리는 12월의 흰눈송이를 보면서도 궂은비, 찬눈을 다 맞으시며 헌신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를 눈물겹게 되새겨보는것이며 이름없는 산기슭에 뻗어간 눈덮인 길을 걸으면서도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야전렬차를 타시고 헤쳐가신 그이의 현지지도의 길을 더듬어보며 눈시울을 적시는것이다.

정녕 우리 인민 누구나 그이의 한생을 눈보라 치는 겨울이면 대지를 포근히 감싸안아주고 따스한 봄이 오면 소리없이 녹아내려 그 땅에

생명수를 부어주는 흰눈처럼 나라와 인민을 위해 자신의 한몸과 온넋을 깡그리 바치신 애국현신이 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으시였던 2016년 11월의 그날 눈이 내리는구만, 장군님과 눈물속에 영결하던 날에도 눈이 내렸지,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살불이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렇다.
흰눈, 흰눈은 자연의 산물이다. 그리고 계절을 맞추어 내린다.

하지만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그리움의 흰눈은 계절을 모르고 쉬임없이 내리며 우리 모두에게 속삭이고 있다.

우리 장군님 한평생 맞고맞으신 흰눈을 언제나 잊지 말라고.

글 염향십

인민을 위한 한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지는 12월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그이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

한평생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고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려 자신을 깡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흐르는 세월이 아무리 류수같고 세대가 열백번 바뀐다 한들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 쌓으신 업적을 우리 인민은 잊지 못하고 있다.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저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신 숭고한 의지였다.

그이의 마음속 첫자리, 모든 사색과 실천의 출발점에는 인민이 있었다. 선경의 새집에 들리시여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부터 물으시고 공원을 찾으시여도 인민들이 기뻐하는가부터 알아보신 그이이시였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은 우리당이 하늘처럼 내세우는 우리 인민이 누려야 한다는 것이 그이의 뜻이였고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 조선로동당의 특이한 계산방법도 그이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세계에서 태어난 것이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 명절날, 휴식일을 잊으시고 하루하루를 열흘, 백 날 맞잡아 분투하시며 인민의 락원을 가꾸신분이 그이이시였다.

인민에게 끝까지 충실히하신 그이이시기에 인민들이 잘살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시면 쌓인 피곤도 한시에 사라지고 힘이 솟는다고, 자신께서는 우리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할수만 있다면 고생을 사서라도 하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있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그이의 숭고한 뜻이 그대로 집약되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시였다.

인민들속에 들어가라, 이것은 그이의 혁명

생애를 관통하는 신조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있어서 우리 인민은 믿고 의탁할 마음의 기둥이였고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낼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과 용기를 주는 샘줄기였다. 인민대중이 지니고있는 힘과 지혜에는 한계가 없으며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을 조직동원할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그이의 확고한 립장이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방대한 파업이 제기되고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나설 때마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시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했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를 여러 차례 찾으시여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늘과 같은 어려운 때에 당을 어떻게 밟들어야 하는가 하는것을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강계정신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그후 강계정신은 온 나라에 료원의 불길로 타번져 우리 인민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였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다.

우리 인민들은 오늘도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2011년 12월 평양의 모란봉기슭에 자리잡고있는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유희장의 종업원들이 찬바람부는 류달리 추운 날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안타까운 심정을 아뢰이자 그이께서는 웃으시면서 이런 날에 자신께서 와야 인민들이 좋은 날에 찾아온다고 하시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오늘도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당을 그이의 한생의 업적을 다 합치면 인민뿐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인민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위민헌신의 역사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다.

글 김일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수지공예

《립마공성》

수지공예 《립마공성》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2015년 8월 15일 중국의 어느한 유한공사의 총경리인 해외동포가 삼가 드린 선물이다.

《립마공성》은 말을 타고 달리자마자 즉시 승리를 이룩하였다는 뜻으로 선물은 준마가 힘있게 속구치는 모습을 형상하였다.

예로부터 말은 지혜롭고 용감하며 영리한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또한 말이 서서 앞발을 추켜들 때 모든 일이 다 잘되고 그 기상이 하늘에 닿아 천지를 진감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선물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은 앞으로 더 큰 승리를 떨쳐가리라는 총경리의 진정이 반영되어있다.

* * *



크나큰 행운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을 군력으로 굳건히 담보해나가실 역척의 의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그날로부터 14돌기의 년륜이 새겨지고 있다.

12월 30일!

력사의 이날이 있었기에 조선인민군의 본래와 성격이 굳건히 고수되고 백승의 혁사와 전통을 이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조국의 명예와 존엄,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독창적인 군건설사상과 리론으로

2013년 2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시하신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에는 인민군대의 정치도덕적풍모와 군사기술적면모를 철저히 갖추기 위한 근본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인민군대가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전 일체가 될 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시하신 군건설사상리론들은 군력강화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는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정치사상강문화, 도덕강문화를 군건설의 쌍기둥으로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시였다.

애국헌신의 력정으로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부강조국도 있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도 있다는 승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바치신 애국헌신의 자욱은 그 어디에나 력력히 새겨져 있다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는 2013년 10월에 있은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대회를 비롯한 역사적인 대회합들과 여러 군종, 병종의 경기대회들에만 어려있지 않다.

절대로 가실수 없다고 막아나서는 일군들에게 군인들이 있는 곳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여도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풍랑사나운 바다길을 헤치시고 최대열점지역에도 서슴없이 나서신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포연서린 훈련장들과 전호가에서 전시에는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영웅이지만 평시에는 훈련을 잘하는 군인이 영웅이고 애국자라고 총련 병사의 사명과 본분에 대하여 새겨주기도 하시며 군인들의 군무생활의 하루하루를 훈련으로 이어가도록 세심히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가 있어 인민군대는 일당백으로 준비될수 있었다.

오늘날 높아지고있는 우리 조국의 존엄과 지위는 국가방위력강화에 바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심혈과 로고의 고귀한 산아이다.

평화수호의 보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기지들과 위험천만한 시험장들을 찾으시여 성공의 열쇠도 안겨주시고 고무격려해주는 그이의 위대한 헌신이 있어 오늘 우리 조국은 강위력한 국가방위력을 갖춘 나라로 급상승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애국헌신의 력정에 의하여 국가방위력을 비활바없이 강화되고 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지난 14년간의 귀중한 체험을 통하여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이 얼마나 크나큰 행운이고 영광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낳고 놀라운 현실을 안아오는가를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글 김대철

인민을 위한 법

- 사회과학원 법률학연구소 소장 흥철화와 나눈 대담 -

기자: 우리 인민이 누리는 모든 행복은 사회주의 법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되고 있다고 본다.

소장: 그렇다. 우리의 법에는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

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반 원칙들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되어 있다.

가까운 실례로 지난 9월 중순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곡관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적소유권법이 심의채택된 것을 들 수 있다.

량곡관리법 하나만 보더라도 이미 시, 군량곡관리소건설을 3대 필수대상건설의 하나로 『지방발전 20×10 정책』에 포함시켜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 할 데 대한 중대조치가 취해진 조건에서 지방인민들의 복리를 실체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가 법적으로 고착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장: 그렇다. 올해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자녀 세대우대법, 바다가양식법, 수도려객운수법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법들이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보충되었다.

기자: 우리 사회에서 법은 인민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절대적 기준으로 하여 제정되고 있다고 본다.

소장: 물론이다. 국가의 법은 누구의 의사와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고 그 실현을 담보하는가에 따라 성격이 표현된다.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



키우는 세대를 우대해주는 법이다.

우리 나라에서 다자녀세대 우대법이 채택된 것은 처음이지만 이미 전부터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여성들과 그 자식들에 대한 우대원칙을 여러 법의 조항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법은 그 어느것이나 다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모든 영예와 존엄, 행복을 안겨주고 지켜주는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기자: 오늘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 감사하다.

* * *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의 소유자들로

참
가
자

과학기술전당 부총장 김칠범
체육성 국장 박영일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부장 량성옥
『금수강산』 편집부 기자 김지성



기자: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팔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인민이 문명국의 주인으로서의 체모에 맞는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발하고 있습니다.

김칠범: 그렇습니다.

높은 과학기술지식은 사회주의 문명국의 주인으로서 지녀야 할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됩니다. 지난 시기에는 자연부원이나 인적 자원, 자금 등이 경제 발전에서 주되는 작용을 하였다면 오늘에는 과학기술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연구기관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식자원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누구나 현대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것을 초미의 문제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식과 기술로 일하고 단위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 과학기술인재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있으며 누구나

시대의 주인으로 살려는 자각을 안고 현대 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가는 곳마다에 원격 교육 체계를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부문, 단위들에 과학기술 보급 거점들이 꾸려져 누구나 과학 기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민 학습의 대전당이며 다기능화된 과학기술 보급 거점인 우리 과학기술전당도 통합 정보 검색 체계, 대중백과 체계, 자료 열람 체계 등을 완비하고 과학 기술 자료 중심, 보급 중심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전당을 찾는 열람자, 가입자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현대 과학기술의 소유자, 새 기술, 새 문명의 창조자가 되기 위해 애써 노력한 결과 평범한 근로자들 속에서 발명가, 창의 고안 명수들이 계속 배출되어 단위들의 발전이 날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박영일: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체육은 생활의 한 부분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지배하고 사회가 생기와 활력에 넘쳐 발전해 나가자면 사람들이 고상하고 건전한 사상 정신 생활, 문화 정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체육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대중 체육 활동은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체력을 단련 시킬 뿐 아니라 사회에 혁명적으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기풍을 확립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런데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규모와 형식의 대중 체육 경기들을 의의 있게 조직 진행하여 온 사회에 체육 열기가 끓어번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제 12 차 보건부 문 체육 경기 대회, 시, 군 대항 군 중 체육 경기, 성, 중앙 기관 일 군 롱구 경기 대회 - 2025, 제 15 차 전국 농업 근로자들의 롱구 경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대중 체육 경기들이 진행되어 사회의 화목과 집단의 단결력이 힘 있게 파악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명절과 기념일은 물론 사업과 생산 활동의 여가 시간에도 다양한 체육 경기들을 조직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건강한 체력을 소유하고 희열과 랑만에 넘쳐 맡은 일에서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동하는 생기와 랑만을 더해 주며 활발히 벌어지는 대중 체육은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해 갈 근로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기자: 신선한 공기 속에서만 사람의 건강이 담보되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처럼 고상한 인간 관계가 꽂혀나고 서로 돋고 이끌며 사랑과 정으로 화목한 사회에서 만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보람찬 삶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량성옥: 옳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초, 인간 관계의 기초는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것을 미덕과 미풍으로 여기며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남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방조하며 이끄는 덕과 정입니다.

서로 돋고 이끄는 미덕과

미풍이 날로 꽂혀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입니다.

조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전쟁로 병들과 영예 군인들에게 수십 년간 온갖 지성을 다 바친 사람들이며 지극한 정성으로 소생시킨 환자들에게 각종 보약재를 마련해 주며 혈육의 정을 기울여가는 의료 일군들을 비롯하여 미덕과 미풍의 소유자들이 끊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든 수도를 떠나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탄원 진출하는 미더운 청년들은 올해에만도 수천 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기자: 우리도 전국을 편집하면서 미덕과 미풍의 소유자들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는 평양 시 모란봉 구역 비파 2동에서 살고 있는 최기훈로인으로부터 수년 간을 친손녀가 되여 돌보아주고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생명 과학부 학생 최설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아무런 보수도 바람이 없이 특류 영예 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고 부모 없는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 이들을 친

혈육처럼 보살펴주는 것과 같은 미덕과 미풍의 이야기는 내 나라의 어디에서나 꽂혀나고 있습니다.

김칠범: 참으로 나와 남이라는 개념보다 우리라는 개념을 즐겨 부르는 우리 인민들이기에 그런 아름다운 소행들을 발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인민은 생활 상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돋고 위해 주는 우리 사회의 고유한 국풍인 미덕과 미풍은 날이 갈 때 따라 더욱 꽂혀나고 있으며 이로 하여 조국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파감히 뚫고 전진과 발전의 뿌렸 한 진일보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 국가가 겪는 곤난을 열 가지 든 백 가지 든 함께 걸어지는 미덕과 미풍의 주인공들이 많기에 우리 인민이 바라는 사회주의 문명국은 반드시 일떠서게 될 것입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업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 *

계속 오고만 싶은 곳

-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충성의 편지이어달리기대표단 -

《양덕온천, 이곳에서 보낸 3일간은 그야말로 꿈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평안남도 양덕군 온정리에 자리잡은 양덕온천 문화휴양지에서 재중동포들이 이구동성으로 터친 말이다.

그들은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하였던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충성의 편지이어달리기대표단 성원들이였다.

평양에서 당창건 80돐을 성대히 경축한 이들은 산간의 지대적특성과 자연환경에 어울리게 꾸려진 양덕온천문화

휴양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였다.

특히 실내와 야외의 온천장에서 온천욕을 하면서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는 단어를 줄곧 외웠는가 하면 서로서로 사진을 찍으며 춤도 추었다.

허상숙, 방영선, 리설희, 김성미, 량금해동포들은 스키장

정점인 대봉의 휴식각까지 삽도를 타고 오르내리며 그림 같이 아름다운 휴양지의 전경을 한눈에 굽어보았는가 하면 서로마다 《양덕온천아!》하고 입나팔을 불며 메아리를 남기

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휴식각에서 군고구마를 껍배기하며 산풀의 특유한 정서에 취하여 가슴 후련히 웃음보를 터뜨렸다.

그런가 하면 말을 타고 질주하는 승마의 멋도 체감하였고 립체룰동영화관에서 《아름다운 평양》, 《관성단차》를 비롯한 영화들을 보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최은복선생은 여기 봐도 절경 하였다.

저기 봐도 절경인 양덕온천의 경치에 반해 피리를 불었으며 조국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최경호동포도 자기 심정을 담은 노래를 불러 재청을 받았다.

정은심동포는 온천의 신비로운 약리작용과 다양한 운동 효과로 누구나 젊음과 희열, 생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하면서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곳을 찾고 있는데 오고 또 와도 계속 오고만싶어지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동포들은 휴양지에서 내리는
길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도
찾아 명사십리를 거닐며 바다가
특유의 이채로운 경관을 눈에
담았다.

글 김슬기
사진 김영호



나는 이번에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다.

얼마나 오고싶었던 조국인지
모른다.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다

5년전 세계적인 악성전염병
사태가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았을
때 정말 안타까웠다. 나는
고향에 대한, 조국에 대한 그리움
으로 해를 보내였다.

그러던 내가 이번에 이렇게
조국의 큰 명절인 당창건 80돐을
평양에서, 그것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경축하게 되니 그 기쁨을 무엇
이라고 말할수 없다.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을 쓰는 어머니처럼
그 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창건 80돐 경축대회의 연설에서

우리 총련합회의 이름도 불려
주시였다.

우리 축하단 성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친근
하신 음성을 들으며 그이의
마음속에 우리 재중동포들도
자리잡고있다는 생각에 모두가
울었다.

정말 그때의 심정을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다.

나는 조국에서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을 항상 잊지 않고
애국사업에 보다 적극 나서
겠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장 김경수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내가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
가면 중국사람들은 나의 두손을
잡고 이렇게 묻군 한다.

조선에서 멋있는 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준다
는데 사실인가, 아이들도 돈
한푼 내지 않고 공부한다는데

실지 그런가, 양덕온천이 참
좋다는데 그 물이 진짜인가. ...

그때마다 나는 모든것이 진짜
이다, 조국에서는 가짜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백번
듣느니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데
한번 평양행을 하라고 권고
하곤 한다.

나도 몇년동안 조국에 래왕을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평양에

오고있다.

조국땅에 발을 내려놓는 순간
부터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넘쳐흐르는
웃음과 현대미가 느껴지는 옷
차림들이 나의 눈길을 끌었던것
이다.

수도에는 송화거리, 화성
거리, 전위거리 등 새 거리들이

일떠섰고 농촌과 지방들에는
자기 고장의 특색이 살아나는
살림집들과 지방공업공장들이
세워졌다.

뿐만 아니라 한겨울에도
신선한 남새를 먹을수 있는
온실농장들이 앞을 다투어 일떠
섰는가 하면 학교와 휴양지들도



일신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다 인민을 위한
것이다. 국가가 훌륭한 집을
지어 무상으로 인민들에게 안겨
주는것은 우리 조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회장 주계숙



최룡진

그가 선 자리



새로 보급할 위생선전 자료를 토론하고 있다.

김만유병원 위생방역과 과장 최룡진에게 있어서 2023년 9월 9일은 한생에서 잊을수 없는 뜻깊은 날이다.

그날에 그는 로력혁신자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기념촬영장에 나오시여 평범한 나날에나 어려운 나날에나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놓고 혼심을 바쳐 조국번영의 값진 재부들을 창조해나가는 공로자, 로력혁신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실 때 그는 끊어 오르는 결정을 진정 할수 없었다.

그는 이날 밤이 깊도록 지나온 나날을 더듬어 보았다.

어릴 때부터 기능진단부문에서 명의사로 이름날린 아버지를 보아온 그는 의사를 꿈꾸었다.

희망대로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배치받았으나 룽진은 뜻밖에도 위생방역과로 가게 되었다.

병원내감염을 막기 위한 소독사업으로부터 각종 의료기구소독, 위생선전 등은 그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술장에서 척척 집도를 맡아하는 판록있는

명의사를 그려보았던지라 룽진은 처음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의 시야에는 환자들을 위해 자기들의 정성을 다하는 의사들의 모습만이 밟혀왔다.

그는 내시경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른 파로 조동시키게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던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를 위생방역과에 보내달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이다. 너도 알겠지만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다. 병이 나기 전에 사람들을 치료하는데서 위생방역과가 맡은 임무가 대단히 크다. 아무리 의술이 높고 설비가 선진적이라 해도 위생방역이 선행되지 못하면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낼수 없다. 위생방역은 병원내감염을 막는데서 판문이다.』

아버지의 말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일본에서 살던 아버지가 귀국선에 오를 때 의사가 될 오직 한생각을 품었다는것을 그는 어릴 때부터 자장가처럼 들어왔다. 오사까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아버지는 병원문전에서 숨진 친구를 보면서 꼭 의사가 되리라 마음먹었다. 조국의 품에 안겨 아버지는 소원대로 평양의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될수 있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직종을 가리지 않았다. 기능진단부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무시할수 없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으며 내시경과에서는 권위자로 공인되게 되었다.

룽진은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되새겨보며 잠시나마 혼들렸던 마음을 다잡고 맡은 일에 혼심을 쏟아부었다.

더 많은 위생선전자료들을 구비하여 계시하고 강의에 출연하였는가 하면 실험실들과 검사실들의 면모를 일신하고 여러가지 시약과 자외선물소독기, 오존공기소독기 등도 자체로 개발하였다.

그는 막힘없는 방역의사로, 집단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으며 2017년에는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과장이 되던 날 아버지는 너무 기뻐 《정말



휴식일에 공원에서 안해와 함께 딸이 창작 문학작품을 보아주고 있는 최룡진

기쁘다. 이 세상에 <성실>이라는 두 글자만 있으면 두려울것이 없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5년전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룽진과장은 본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언제인가 조국을 방문하였던 그의 작은아버지와 고모는 부자의사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들을 축하해주었다.

룽진과장은 오늘도 누가 보건말건 묵묵히 인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있다.

글 임향심

사진 김성철

떠나고 싶지 않은 고장



황해남도 재령군은 우리 나라에서 벼를 많이 생산하는 군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군주민들은 다른 고장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펼칠 때면 벼를처럼 쌀자랑, 벌자랑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은 지방 중흥과 더불어 일떠선 지방공업 공장들로 하여 군주민들의 자랑이 더해지게 되었다.

얼마전 재령군을 찾은 우리는 읍지구에 있는 한 상점부터 찾았다. 상점에 들어서니 《재령》이라는 지명을 단 상표가 붙은 제품들이 매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상점 책임자는 《이렇게 매대의 거의 모든 제품들이

는데 이제는 군에서도 질좋은 비누가 생산되어 나오니 누구나 좋아한다는것이였다.

도시제품들을 보며 부러워 하던 재령군주민들이 오늘은 백 가지가 넘는 자기 고장 제품들 중에서 자기의 취미와 기호에 맞는 상품을 골라가며 쓰고

있었다.

자기 고장 제품이 제일이라는 자부가 비낀 흐뭇한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군지방공업공장들로 향하였다.

재령군옷공장에서는 수요자들의 요구와 기호에 맞게 양복, 달린옷, 샤쓰, 체육복 등 수십



재령군일용품공장

종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었다. 특히 공장의 얼굴이라고도 할수 있는 가죽잠바는 질이 높은것으로 하여 봄철피복전시회-2025와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5》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한벌의 옷을 내놓아도 도시제품 못지 않게 만들려는 이곳 종업원들의 모습을 렌즈에 담은 우리는 재령군식료공장에 도들려보았다.

공장에서는 자기 고장의 특색이 살아나는 제품을 내놓기 위한 사업과 지표를 더 늘이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전개하여 빠다겹파자와 크림겹파자 등 수십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사탕, 파자, 강정, 빵, 탄산단물뿐만 아니라 기초식품 등 하나하나의 제품들이 질과 포장에서 나무랄데 없었다.

우리와 만난 김혜경지배인은 조업당시까지만 해도 10여가지에 불과하였던 제품이 1년도 안되는 사이에 70여가지로 늘어났다고 하였다.

재령군일용품공장에서 생산



선생님과 고향의 사랑을 글작품집에 담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는 재령군 남산소학교의 글짓기소조원들

하고있는 샴푸, 린스, 물비누, 가루비누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제품들도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이렇듯 질좋은 제품들이 생산되니 재령사람들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랴.

자기 군의 지방공업공장들에 대한 사랑과 고향에 대한 사랑은 재령군 남산소학교의 학생들이 창작한 《제일 큰 사랑》,

《나는야 재령소녀》, 《멋쟁이 공장》 등의 동시들과 재령군 안의 유치원어린이들의 노래와 춤들에도 담겨져있었다.

당의 정책에 따라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과 농촌살림집들이 일떠서고 농기계들이 벌을 누비는 재령군은 참으로 인상 깊은 고장이였고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은 고장이였다.

우리의 마음이 이리 할진대 재령군에 고향을 둔 동포들의 심정이야 오죽하랴 하는 생각이 뇌리에 갈마들었다.

아마 동포들이 오늘의 재령땅을 찾는다면 옵거리에 옛 모습그대로 있는 조선봉건왕조 시기의 문루각을 보고 고향임을 알아볼수 있겠는지.

재령땅을 떠나는 우리의 가슴속에는 당시 펼친 지방진흥의 새시대와 더불어 이고장의 사랑은 세세년년 늘어나게 되리라는 확신이 자리 잡았다.

글 변진혁
사진 김영호



선진적인 치료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재령군병원의 의료일군들

한해의 취재수첩을 펼치고

동포여러분, 기쁨과 환희속에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두해가 서로 엇바뀌는 류다른 순간을 목격 하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어느덧 2025년 한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부피두터운 취재수첩을 한장두장 번질수록 지나온 한해가 떠오르며 우리의 가슴은 설레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조국해방 80돐과 조선로동당 창건 80돐이 되는 해인 동시에 당 제9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사업들이 더 파감하게, 더 실속있게, 더 긴장하게 진행되어 조국청사에 특기할 사변적성파들을 안아온 궁지스러운 해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총련 결성 7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뜻깊은 올해에 아흔번째 생일을 맞는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축전도 보내주시였으며 평양에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70돐기념 중앙보교회가 성대히 진행하도록 배려하여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결성세대의 애국정신을 이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위대한 새 역사를 써나가자》라는 서한도 보내주시였습니다.

조국을 방문하였던 총련결성 70돐 재일본조선인감사단 성원들은 총련일군들을 애국자중의 애국자라고 불러주신 서한의 구절구절을 읽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몸은 멀리 이역에 있어도 마음은 조국과 한시도 떨어져본적이 없는 동포들이였습니다.

그래서 조국방문의 길에 오를 때면 제일먼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꽂바구니들을 진정하였습니다.

경사스러운 4월과 2월의 명절을 비롯하여 국가적인 명절들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비롯한 동포조직들에서는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꽂바구니들을 보내여왔으며 다채로운 경축모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국해방 80돐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였습니다.

수차에 걸쳐 백두산을 답사하였지만 올 때마다 새로운 감정을 느낀다고 하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차상보동포의 이야기가 귀가에 쟁쟁합니다.

뿐만아니라 평양을 방문하여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던 재중조선공민자녀방문단 성원들의 모습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해안명소의 경치에 너무도 반해 그 자리에서 즉흥시를 지어 읊던 재중조선인청년협회 국장 김송미동포와 하얀 모래불에서 활씨름을 하며 유쾌한 웃음판을 펼쳐놓던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부회장 김승걸동포의 모습도 우리의 취재수첩에는 다 새겨져있습니다.

특히 11살 나는 아들의 손목을 잡고 조국방문길에 올랐던 최결동포의 모습이 눈에 삼삼합니다. 그때 최결동포는 《16년전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국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해외에서 생활해도 뿌리는 조국에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자기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명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나에게도 자식이 생겼습니다. 나는 아들을 데리고 조국에 오면서 나의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말을 해주었습니다.》라고 속생각을 터놓았습니다.

정말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할수 없는것이 바로 조국을 그리는 동포들의 마음일것입니다.

그래서 동포여러분은 앞을 다투어 조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조국을 위한 좋은 일들을 서로가 찾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날이 변천되는 조국의 오늘에 동포들의 진정 어린 그 마음, 그 모습이 비껴있어 이해의 마지막 날과 더불어 쉽게는 덮을수 없는 우리의 취재수첩입니다.

우리는 동포여러분이 앞으로도 건강한 몸으로 애국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랍니다.



생산활성화의 비결

《백학》상표를 단 치과위생용품들은 조국인민들속에서 인기 제품으로 되고있다.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 생산된 이 제품들은 국내의 여러 전시회들에서 최우수제품으로 평가되었다.



2017년에 조업한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은 2023년에 10대최우수기업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연구와 생산이 일체화되어있는 공장에서는 10여종의 다양한 치과위생용품들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데 제품들은 경공업제품 전시회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전시회들에서 최우수

제품으로 평가되었다.

《백학》상표를 단 중조치약, 나노금강석치약, 룽뇌향치약, 나노산화아연치약, 생강정유치약을 비롯한 기능성 및 치료용 치약들과 함수약, 치과위생도구들은 그 가지수가 수십 가지이며 인민들속에서 인기제품으로 되고있다.

성과의 비결은 공장이 새로운 경영관리방법을 적용한데 있다.

조업당시 공장앞에는 자체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국내의 원료, 자재에 의거한 생산토대구축을 비롯하여 해야 할 사업들이 많았다.

일군들은 그 해결책을 기업 관리의 정규화에서 찾았다.

공장의 실정에 맞으면서 생산자대중의 리익에도 부합되는 합리적인 사업준칙이 보다 구체화, 세분화되고 그것을

생산활동에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이것은 대중의 열의를 비등시켜 경영활동의 효률을 높여나갈수 있게 하였다.

연구사들은 물론이고 노동자들 모두가 기술혁신 사업에 달라붙었다. 적지 않은 종업원들이 원격교육과 기술

학습, 전습 등을 통하여 자기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였고 해마다 수십건의 가치있는 창의고안들을 내놓았다.

공장의 인재력량이 강화되고 연구과제들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었다.

결과 국내의 원료, 자재에 의거한 생산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큰 진전이 이룩되었고 제품의 질제고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지배인 리영숙은 《우리가 현행생산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의 경증이나 따지고 선후차를 가르는데만 급급했더라면 공장은 오늘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했을것입니다. 생산활성화의 비결은 철저히 생산을 담당한 대중의 주인다운 일본새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글 강소현
사진 김평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개성고려인삼은 수천년전부터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거나 예방하는데 널리 쓰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약재이다.

인삼이 자라는데 가장 리상적인 기후와 풍토를 가지고 있는 개성지방에서 재배되는 개성고려인삼은 약리효과가 세계적으로 《약초의 왕》, 《생명의 뿌리》로 인정되고 있다.

건강과 장수에 필요한 여려 가지 배당체와 필수아미노산, 각종 비타민과 광물질 등이 들어있어 보약중의 보약으로 되고 있는 인삼은 항암작용이 밝혀진 후로 그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에는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있다.



50여년간의 연혁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개성지방에 대규모의 인삼농장과 인삼가공공장을 두고 효능이 높은 홍삼, 백삼을 비롯한 각이한 크기와 종류의 개성고려인삼들과 여러 가지 인삼차, 인삼정액, 인삼술, 인삼꿀 등 특색있는 70여 가지의 가공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제품들은 품질이 우수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다.

회사에서는 개성고려인삼의 성분과 약리 및 림상작용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다양한 인삼제품들과 건강식품들을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매자들의 평이 좋다.

최근에만도 회사의 연구기지들에서 개발된 백삼과 홍삼, 부채마를 이용하여 만든 차제품이 건강에 매우 좋은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로씨야,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40여개의 나라와 지역들에 지사와 판매대리점들을 두고 있는 회사는 모든 무역거래에서 우수한 품질과 철저한 신용을 담보하고 있다.

글 김성경, 사진 김강무



래일을 설계해간다

2016년에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은 지난 시기의 전축창조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건설된 건축물이다.

과학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원자구조 모양으로 형상된 전당의 설계에는 건설정보 모형화기술을 도입한 우수한 통합관리체계가 적용되었다.

이 체계는 형성안그대로의 건축물외형과 그 내부의 모든 세부구조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적 으로 들여다보며 대상별공사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소비량을 정확히 타산하고 관리하는 현대적인 모의시공관리기술이다.

이 방식에 의거하면 건축과 구조, 전기와 난방, 위생설비를 비롯한 모든 세부도면들의 오유와 시공과정에 생긴 결함들을 신속히 알아내어 반복시공을 없애고 작업량과 자재소요량을 정확히 분석하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사의 질과 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술개발에 문명건축기술사의 건축가, 연구사들도 참가하였다.

문명건축기술사는 조국에서 권위 있는 건축설계단위들과 어깨를 견줄수 있는 실력있는 단위로 인정되고 있다.

기술사에서 내놓은 건축설계프로그램들은 전국적으로 진행된 과학기술축전들에서 순위권에 입선하고 있다.

입선된 프로그램들은 건축설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곳 건축가, 연구사들은 인민의 편의를 우선시하는것을 첫째가는 요구로 내세우고 건축형성안을 설계하고 있다. 새 거리건축형성안을 설계해도 인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평면배치, 구획배치를 하고 건축형식도 새롭게, 그러면 서도 해당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집체적지혜를 합쳐 가며 하나하나의 건축설계형성안들을 완성하고 있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건설장에서 시공과정에 나서는 문제들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해주고

있다.

이곳 건축가, 설계가들은 건축물의 질보장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시공공정별 질검사에 대한 요구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 기간 기술사에서는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삼지연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중요대상들의 기술설계작성에도 기여하였다.

기술사의 설계가들은 여러 나라들에 진출하여 기술교류와 해외합작설계도 맡아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 일해본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은 《문명건축기술사의 건축술과 컴퓨터설계수준이 아주 높다.》고 평하였다.

《우리는 건축형성안들을 더 많이 내놓아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라고 고성일사장은 말하였다.

글 김슬기
사진 리철



교육용로보트제작집단

- 경흥전자제품제작소에서 -

최근 우리 나라에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유치원 어린이들도 무척 좋아하는 로보트와 관련한 TV편집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것은 편집물에 나오는 교육용로보트가 그 성능에 있어서 매우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로보트의 동체를 구성하는 각이한 부분품들과 조종장치, 조종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교육용로보트로는 학생들이 자기가 의도하는 여러 가지 모형의 로보트들을 직접 조립하거나 동작시킬 수 있다.

유치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용으로 나누는 이

로보트의 우점은 조종프로그램이 도형맞춤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언어를 모르는 학생 소년들과 어린이들까지도 쉽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100여개의 각종 수감 장치와 수지부분품들로 되어 있는 이 교육용로보트로는 상상 할 수 있는 임의의 로보트들을 수십 가지나 만들 수 있으며 같은 형태의 로보트라고 해도 조종 프로그램의 수값에 따라 서로 다른 운동방식을 가진 로보트를 만들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이러한 로보트들을 직접 조립하고 동작시켜보는 과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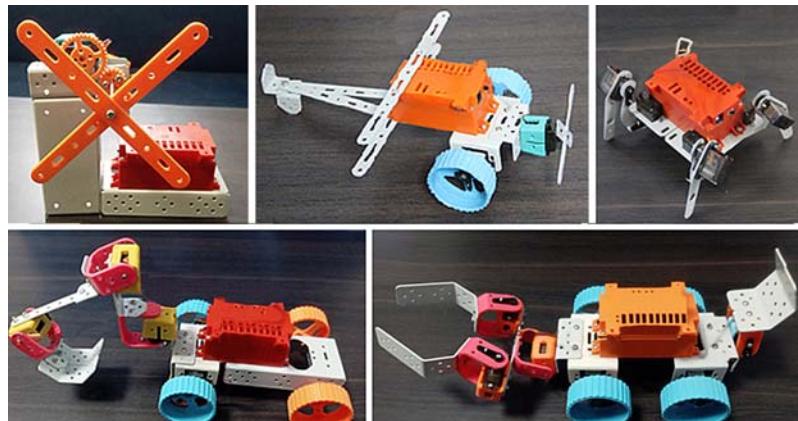
수학과 물리학, 프로그램작성법과 같은 여러 학파목들의 유기적인 결합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창상력과 실천능력을 높여 주는데 아주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경흥전자제품제작소에서 개발한 이 교육용로보트는 로보트경기들에 출품되어 그 성능과 제작기술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사실 이곳 제작집단은 빛섬유 케블탐지기를 비롯하여 인민 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성능 높은 첨단제품을 내놓는 것을 자기의 기본지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던 이들은 우연히 어느 한 보통교육단위로부터 교육용로보트를 제작해줄 수 없겠는가 하는 청탁을 받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스팀(STEAM)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는 기초를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하여 오늘 세계적으로 기초교육 단계의 중점 교육으로 인정되고 있는 로보트교육의 중요성은 제작소의 연구집단으로 하여금 이 청이 단순히 한 교육단위의 부탁이 아니라 후대들, 새세대들의 요구로 받아안게 하였다.



제작소에서 개발제작한 교육용로보트들의 일부



경흥전자제품제작소 연구집단의 노력에 의하여 교육용로보트의 종류와 그 적용범위는 날로 커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기의 개발목표를 새롭게 정하게 되었으며 이 연구에 뛰어 들게 되었다.

처음 국내의 교육용로보트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하는 과정에 이들은 개발방향을 대담하게 기성의 결함을 극복한 새롭고 발전적인 견지에서 설계해나갔다. 기초자료준비를 위해 방대한 양의 기술자료들과 문헌들을 연구분석 하였으며

개발하였다.

교육학적 원리와 학생소년들의 동심에 맞는 조종체계와 프로그램개발 등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고심어린 노력 끝에 이들은 1년만에 목표한 교육용로보트를

거둔 성과를 현재 전국의 많은 교육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나가고 있다.

글 김성경
사진 리석

기억명수들을 키워내는 박사

김형직사범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차영호



《오늘날 뛰어난 기억력은 더 천부적인 것이 아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능히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은 지난 8월 말 제6차 대학생 기억경연에 참가하여 1위를 한 김형직사범대학 학생 량정희가 경연후 기자에게 한 말이다.

경연에서 량정희는 평시에

련마한 기억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우승후보자들을 누르고 3개 기억종목(1시간주파기억, 얼굴과 이름기억, 가상사건과 낸대기억)에서 세계기억기록을 갱신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량정희의 지도교원인 동시에 경연심사위원회 위원장이며 우리나라 기억술교육의 권위자인 김형직사범대학 실장 차영호는

《누가 더 많은 기억묘리를 찾고 적용하는가에 따라 경연의 승부가 결정된다. 선수본위의 경연방식은 낡았다.》라고 평하였다.

그의 이 평은 지난 시기 전적이 우수한 선수일지라도 새로운 기억묘리와 방법을 부단히 터득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응당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으로 음미된다.

지난 기간 기억경연들에서 전적이 시원치 않았던 량정희 학생의 성장과정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학생의 성적이 오르지 못하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한 차영호 실장은 장기기억과 수기억이 특기인 그의 장점과 개성적 특성에 맞는 묘리와 방법을 찾아 적극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 량정희 학생은 자기식의 묘리와 방법들을 탐구 활용하게 되었으며 지난 시기의 기록을 돌파하게 되었다.

차영호 실장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서 중시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완강한 투자와 인내력이다.

량정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처음 기억술훈련을 할 때에는 뻐근했다. 장기기억은 1시간 동안 기억하고 2시간 반동안 상기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 기억은 4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자면 완강한 투자와 인내가 필요



새로운 기억술교수방법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였다.》

항상 세운 목표를 자각하며 하나하나 힘든 고비들을 넘기는 과정에 학생들은 묘리를 터득하였고 인내력을 체질화해 나갔다.

오늘날 사람들은 차영호 실장을 두고 천성적인 기억술교육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 있어 기억술교육은 생소한 부문이였다. 외국어교원이었던 그는 어느한 기회에 세계적인 기억술 교육실태를 반영한 도서를 보게 되었다.

도서에서 충동을 받은 그는 한번 기억술교육을 본때 있게 개척해보리라 마음먹고 필요한

참고도서들을 독파하면서 여러 해 사색을 거듭해 나갔다.

끊임없는 노력끝에 그는 마침내 자기식의 기억술을 찾아내고 그것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교육 과정안으로 정립하였으며 오늘은 박사, 부교수로, 국내 기억술 교육의 권위자가 되었다.

그의 박사론문인 주심산, 기억술, 사유도, 속독에 대한 연구를 종합체계화한 《두뇌 발달교육리론연구》는 오늘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30대, 40대 중엽의 사람들 속에서도 널리 애독되고 있다.

《아동두뇌발달교육》, 《두뇌 활용기교》, 《학습능력과 기억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억의 묘술》을 비롯하여 그가 집필한 기억술과 관련한 교재와 참고서들은 10여권이나 된다.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 2차에 걸쳐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데 기억한 그는 지금까지 근 60여명의 기억명수들을 키워내 였다.

《기억명수들을 한명 한명 키워 내는데 나는 교육자로서 더없는 궁지와 자부를 찾는다.》라고 차영호 실장은 이야기하였다.

종합체계화되고 부단히 간신되는 그의 기억술교육방법들은 교육학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글 김성경, 사진 김영호

상식

경추를 보호하는 몇 가지 방법

-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춥지 않게 하여야 한다. 간혹 찬바람을 맞았을 경우에는 랭을 없애는 텅을 끊여 숙이기, 머리들기, 왼쪽으로 돌리기, 오른쪽으로 돌리기, 앞으로 내밀기, 뒤로 제끼기, 시계 바늘회전 방향으로 돌리기, 시계 바늘회전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 등이 있다.

-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휴식

시간에 경추운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에는 바로 앉은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머리

숙이기, 머리들기, 왼쪽으로 돌리기, 오른쪽으로 돌리기, 앞으로 내밀기, 뒤로 제끼기, 시계 바늘회전 방향으로 돌리기, 시계 바늘회전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 등이 있다.

경추운동을 한번에 5분정도 진행

하는데 이때 동작은 가볍고 유연하게 해야 한다.

- 낮잠을 자고난 후

낮잠을 자고난 후에는 인차사업에 착수하지 말고 한손으로 목부위를 안마해야 한다. 이때 힘을 가볍게 주며 련속 50번 주무른다. 목에 열감이 있을 정도로 주무르면 편안한 감을 느낄 수 있다.



희망과 재능을 꽃피우는 곳

-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

1989년 5월 광복거리의 준공과 함께 일떠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오늘도 학생소년들의 파외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궁전에는 예능동, 과학동, 체육관, 수영관 등이 있다. 이곳의 파외소조들에서 학생소년들은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꽂피우고 있다.

특히 예능동에 있는 피아노, 손풍금, 가야금, 조선무용, 성악, 화술과 같은 예술소조들은 언제나 학생소년들로 흥성이고 있다.

예능소조운영과 파장 반순일의 말에 의하면 하루수업을 마치고 예능동으로 찾아오는 학생수만 해도 매일 수백명이나 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평양시안의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에서 예술에 남다른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망라되어여 있다.

소조지도교원들의 진영은 전문예술교육과 사범교육을 받은 깊고 실력있는 대학졸업생들로 꾸려져 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예술소조원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에도 출연하고 있다.

파에서는 교원들이 높은 정치적식견과 예술적 기량, 교육실무적 자질을 갖추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소조별특성에 맞는 교수방법들을 창안하고 월에 1차이상 새 교수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도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과정으로 되고 있다.

예능동의 음악홀에서 자주 진행되는 기량 발표회는 소조원들의 기량을 높일뿐 아니라 지도 교원들의 교수능력을 평가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만경대구역 김주혁고급중학교 고급반 2학년 학생인 전예련은 『내가 가야금소조에 다니기 시작한지 벌써 다섯해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롱현파 같은 가야금의 주법을 익히기가 힘에 부쳤는데 이제는 난도높은 독주곡들도 얼마든지 연주할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지난 4월에 진행된 제60차 전국학생 소년예술축전 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 민족기악

부문에서 1등을 하였다.

그만이 아닌 예능소조의 많은 학생소년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된 여러 축전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예소조의 리송경학생은 11살밖에 안되지만 전국서예축전들에 여러 차례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올해 7월 송도원국제 소년단야영소에서 있은 조로소년들의 재간동이 경연무대우에 로어로 《조로친선》이라는 볏글을 올려 절찬을 받았다.

지난 기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예술소조실들을 돌아본 수많은 외국인들은 학생소년들이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 속에 재능과 희망을 마음껏 꽂피우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고 있는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글 연옥

사진 김성철, 리영철

장애자탁구선수들

인디아, 프랑스를 비롯한 10여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온 백수십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2025년 국제탁구련맹 대북 세계장애인 자초보자급경기와 고웅 세계 장애 자도전자급경기에서 우리 나라의 장애자탁구선수들이 5개의 메달을 쟁취하였다.

특히 김영록, 박금진선수들은 2025년 국제탁구련맹 대북세계 장애자초보자급경기 남자복식(7부류)에서, 김영록선수는 2025년 국제탁구련맹 고웅세계 장애자도전자급경기 남자단식(7부류)에서 각각 1위를 쟁취하였다.

마유철감독의 말에 의하면 2025년 국제탁구련맹 대북 세계장애인 자초보자급경기 남자

복식(7부류)에서 김영록, 박금진선수들이 대전한 타이 선수들은 세계탁구선수순위에서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강자들로서 그중의 한 선수는 2020년 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 남자단식에서 1위를 쟁취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만만치 않은 대상들이였다고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당시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속에서는 타이 선수들이 우승할것이라는 견해가 우세를 차지하였다.



2025년 국제탁구련맹 대북세계장애인 자초보자급경기와 고웅세계장애인 자도전자급경기에서 5개의 메달을 쟁취한 우리 나라의 장애자탁구선수들



우리 선수들은 상대선수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었지만 경기를 박력있게 진행하였다.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부단히 반복되는 속에 2:2로 비긴 가운데 우리 선수들은 5회전을 치르게 되였다.

다른 체육경기도 그려하지만 탁구경기에서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육체심리적 부담은 대단히 크다. 장애자들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김영록선수는 《결승경기에서 우리가 대전한 타이 선수들은 육체적 조건이 너무도 좋았다. 그로 하여 경기 승패를 결정하는 5회전을 우리는 힘들게 치르지 않으면 안되였다.》라고 경기과정을 회상하였다.

경기 시작부터 상대선수들은 자신만만하게 우리 선수들을 부단히 압박하였다. 우리 선수들과 상대선수들과의 점수차이가 4:6을 기록하였을 때에는

관람자들속에서도 타이선수들의 승리가 확정적이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바로 그때 마유철감독이 타임 아우트를 신청하였다. 이것은

그후 경기를 역전시킨 중요한 계기로 기록되었다. 주동적인 공격을 들이댈수 있는 감독의 전술방안은 곧 실천에 옮겨졌다. 우리 선수들은 상대선수들의 약점을 틀어쥐고 정신적 압박감을 주면서 공격의 도수를 높여 마침내 11:6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경기를 결속



2025년 국제탁구련맹 아시아장애인자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우리 나라의 장애자탁구선수들

하였다.

관람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한 경기는 전문가들과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충격을 주었다.

로씨야의 한 장애자탁구선수는 우리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앞

으로도 잊지 못할것 같다고 하면서 조선선수들이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펼쳐보였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김영록선수는 2025년 국제탁구련맹 고웅세계장애인 자도전자급경기 남자단식(7부류) 결승

경기에서도 자기의 실력을 유감 없이 보여주었다.

세계탁구선수순위에서 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선수의 맵짜고 정확한 공격에 안전한 방어와 드센 반공격을 들이

대는 김영록선수의 경기 모습을 보면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더우기 그가 3:1로 경기를 결속하였을 때 외국의 언론들도 그의 뛰어난

경기능력과 높은 심리적 자질, 방어 및 반공격 기술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 선수들이 거둔 성과는 전반적인 경기 형세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 경기들에서 우리 나라의 서광남, 윤광성 선수들은 2025년 국제탁구련맹 대북세계장애인 자초보자급경기 남자복식(9부류)에서 2위를, 2025년 국제탁구련맹 고웅세계장애인 자도전자급경기 남자복식(9부류)에서 3위를, 박금진선수는 2025년 국제탁구련맹 대북세계장애인 자초보자급경기 남자단식(7부류)에서 3위를 쟁취하였다.

그후 2025년 국제탁구련맹 아시아장애인자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의 장애자탁구선수들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였다.

글 김지성
사진 리석

캄보쟈의 무도인들이 잊지 못하는 사범부부



2019년 벨가리아에서 진행된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는 날로 발전하는 태권도기술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지난 시기에는 다른 나라와 지역의 선수들이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다투던 세부종목이 제한되어 있었다면 제 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그러한 나라 수도 늘어났다.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는 캄보쟈도 있다.

지금껏 태권도 세부종목경기에서 금메달을 꿈으로 여기던 캄보쟈태권도선수들이 성인 남자개인5단투경기에서 1등을 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예측에 파arel구를 냈다.

캄보쟈 체육성도 놀랄 이 성과에는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사범단 사범 공훈체육인 리철남과 국제태권도련맹 A급 심판원 인민체육인 김경실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8단 사현인 리철남과 6단 사범인 김경실은 부부간이다.

홍안의 시절부터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함께 참가한 이들은 수련의 나날에 더욱 정을 두터이 하며 백년가약을 맺었다.

2001년까지 국제경기무대에서 이들부부는 정확하고도 힘 있는

동작들을 펼쳐보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특히 리철남사현은 2000년에 진행된 제1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개인맞서기 71kg급 결승경기에 출전하여 360° 돌며 차기를 손색없이 수행하여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초시켰다.

그때 경기장은 리철남사현의 빠른 동작을 촬영하는 사진기들의 렌즈샤타소리로 차고 넘쳤다고 한다.

이때 촬영된 화면은 지금도 인터넷에 올라있어 태권도를 애호하는 많은 수련생들이 즐겨 보고 있다.

김경실사범도 날렵하면서도 정확하고 힘있는 동작으로 개인들과 개인위력경기에서 통쾌한 장면들을 펼쳐보였다.

하여 리철남사현은 2001년에 공훈체육인칭호를, 김경실사범은 인민체육인칭호를 수여받게 되었다.

리철남사현은 수련을 주기에 앞서 수련생들의 마음속에 태권도의 리념과 정신을 심어주었으며 모두가 한가정이 되어서로 돋고 이끌도록 하였다.

생활에서는 다정다감한 리철남사현이였지만 훈련에서는 단한치의 에누리도 몰랐다.

김경실사범도 수련생들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였다. 나날이 도장에 들어서는 훈련생들이 많아지는것으로 하여 초급자들에 대한 수련을 도맡아하였다.

이들부부의 노력속에 캄보쟈의 수도 여기저기서 태권도를 수련하는것이 하나의 풍조로 되었다. 하여 캄보쟈의 팔 치안 선수는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경기 대회에서 1등을 하였으며 후에는 국가팀의 감독으로까지



캄보쟈태권도선수들과 함께(2018년 촬영)

되었다.

뿐만 아니라 리철남사현은 아시아태권도련맹 기술위원회 위원장의 중임도 훌륭히 수행하였다.

캄보쟈정부는 태권도발전을 위해 정열을 다 바친 리철남사현에게 여러번이나 훈장을 수여하였다.

하기에 캄보쟈 체육성과 태권도인들은 오늘도 리철남사현과 김경실사범을 잊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전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의 사망 22돐 추모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여러 나라의 무도인들은 리철남사현이 캄보쟈에 뚜렷한 자우를 새겨놓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리철남사현은 태권도에 자기의 모든 힘과 정력을 다 바치고 있다.



캄보쟈에서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는 리철남(2020년 촬영)

글 임향심
사진 리영철

『주간의 피로』

평양골프장

어떻게 푸시는지요?』

『당신들은 주간의 피로를 어떻게 푸시는지요?』

이 물음에 응답자들은 각이하게 대답할것이다.

낚시 혹은 음악감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구와 같은 체육을 한다든가. ...

그러나 중구역 서문동에서 살고있는 송운철(58살)은 골프로 주간의 피로를 해소한다.

묘향무역총회사에서 일하는 그는 일요일이면 평양골프장으로 향하고있다.

공기 맑고 산천경개 수려한 골프장으로는 많은 골프애호가들이 오고있다. 이곳에서 그들은 골프를 치는가 하면 서로 그동안의 생활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두터이 하고있다.

그리다가도 장애물구역에 들어서면 서로가 높은 난도기술의 공치기로 멋진 장면을 펼쳐보인다. 순간의 공치기가 패감과 아쉬움을 불러온다.

종착지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뼘이 모자라서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단 한번의

평양골프장에서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

국제전화: 00850-2-381-8214
전자우편: rmgolfravel@star-co.net.kp



공치기로 환성을 터치는 애호가들도 있다.

그들은 후진이라는것을 모르는 골프는 앞으로만 전진해야 하는 인생과 같다고 이야기하고있다.

이렇게 이곳에서 기술을련마한 애호가들은 봄과 가을철에 진행하는 골프애호가경기에 참가하여 이채롭고 인상깊은 화폭들을 펼쳐 놓군 한다.

지난 10월에 진행된 가을철골프애호가경기가 불만하였다.

경기는 개인경기와 기관, 기업소별 대항경기로





진행되었는데 개인경기도 남자, 여자, 로인부류로 나뉘어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다.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관록있는 선수들과 혜성같이 나타난 애호가들로 경기는 시종 열띤 분위기로 고조되었다.

잔디를 스치는 골프채소리와 함께 골프주로 들에서는 관람자들의 아쉬움과 탄성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중구역 경립동에서 사는 최설향(33살)은 골프를 하면 할수록 몸이 거뜬해진다고 하면서 언제부터 로련한 선수들과 겨루고 싶었는데 4등을 한것만으로도 만족하다고 이야기하였다.

75살 난 전창호로인은 경기에 해마다 참가

하고 있다고 하면서 골프를 하면서부터 짚음을 되찾았다고 하였다.

려명골프여행사 일군인 장정순은 경기에 참가하는 애호가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홀인완(한번 공을 쳐서 단번에 구멍에 넣는 것.)하는 선수들이 많아졌다고 하였다.

려행사에서는 골프를 희망하는 손님들을 위해 골프관광을 조직하고 있으며 골프치기교육과 기술 전습도 주고 있다.

누구에게나 짚음을 주는 골프,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골프에 대한 인기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글 김슬기, 사진 김성철, 김영호



지난 10월에 진행된 가을철골프애호가경기 시상식

유모아

《나는 속이지 못한다》

의심많은 한 여인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입원한 첫 날 옆침대의 환자가 그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봐요. 래일 아주머니의 치료를 의학대학 실습생이 한다는 만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겁이 났다. (절대로 실습생에게서는 치료를 받지 않을테다.)

다음날 여인이 치료실의 침대에 눕자 의사가 다가왔다.

그런데 의사가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끕 내려서 도무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여인은 격분을 금치 못하여 의사에게 항의했다.

《의사선생, 마스크는 왜 끼었어요? 그리구 모자는 왜 그렇게 내려셨어요? 그런다구 내가 선생이 실습의사라는 것을 못 알아볼 것



갈래서 그래요? 당장 의사를 바꾸어 주세요. *

단골손님이 늘어나는 양복점

즐거운 아침출근길이였다.

연하면서도 밝은색으로 다양한 형태의 옷들을 입은 여성들이 경쾌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향미동무, 옷이 정말 보기 좋구만요. 어디서 샀어요?》

《봄철 피복전시회-2025에 구경을 갔다가 마음에 꿱 들어 샀는데 보기 좋지요. 대성구역 종합양복점 대성양복점에서 제작한 것인데 전시회때마다 독특한 형식의 옷들을 내놓아 인기가 높아요.》

두 처녀가 주고받는 말이었다.

우연히 이들의 말을 듣게 된 우리의 발걸음은 자연히 대성구역 종합양복점 대성양복점으로 향하게 되었다.

알고보니 대성양복점은 여성 옷전시회-2022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물론 해마다 진행되는 전시회들에서 련이어 우승의 영예를 지니고 있었다.

양복점에 이르니 벽에는 많은 상장들이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걸려져 있었다.

양복점책임자 김순실은 나이 지숙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알고보니 나이지숙한 여성은 계절에 맞는 양복을 새로 해입으러 온 여성이었다.

김순실은 그 여성에게 어울리는 옷형태와 색갈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여러 옷도안들도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간사이 하나의 도안을 완성해서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 여성은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 같다고 하면서 꼭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는 몸을 재고 자리를 떴다.

잠시후 우리와 만난 책임자는 찾아온 사연을 알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손님들의 기호와 나이, 직업, 몸매, 얼굴형뿐 아니라 계절에 맞게 새롭고 독특한 형태의 옷을 끊임없이 내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곳 양복점 재단사들과 재봉공들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내세우려는 마음을

안고 피복련관단위들에서 보내오는 옷도안들, 가공과 관련한 최신자료들을 부단히 힘들한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양복점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옷차림류행과 나이별에 따르는 옷색깔, 형태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조은주재단사는 부단히 노력하여 나이별에 따르는 여성들의

옷도안들을 창작하였으며 깃, 런곽선, 절개선이 독특한 양복들을 내놓게 되었다.

《절개선을 어디다 주는가, 색갈배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도 옷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옷형태는 고정불변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요구수준도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새 형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입니다.》라고 조은주재단사는 이야기하였다.

재단사들에게는 부피두터운 도안집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기들이 창작한 남녀로 소 옷도안들이 그려져 있다.

항상 새것을 지향하는 이곳 종업원들의 노력에 의해 특색 있는 형태의 옷들이 전시회들에 출품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대성양복점의 단골손님으로 되고 있다.

글 임향심

사진 리영철



우리의 문화를 장려하는 계기로 된 전시회

우리 나라에서 비물질문화유산들을 더 많이 발굴고증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말부터 11월초사이에 평양의 풍치수려한 모란봉에서는 민족유산 보호국의 주최로 비물질문화유산전시회-2025가 진행되었다.

전시회는 문화유산보호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선진적인 기술들을 널리 보급선전하는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들을 등록, 리용하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개별적공민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실장 조일경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보여주기, 체험하기, 다매체편집물시청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비물질문화유산들에 대한 보급 및 소개선전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참관자들은 김치담그기방법, 막걸리담그기방법을 비롯한 우수한 전통음식을 만드는 방법과 침치료법, 뜸치료술과 같은 고려치료방법, 씨름과 윷놀이와 같은 민속놀이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직접 보고 체감하였다.

우리의 춤과 노래, 장단, 민족체육과 민속

놀이도 참관자들의 인기를 모았다.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된 공연무대우에는 민요 《아리랑》, 《모란봉》과 민속무용 《봉산탈춤》중에서 《자루속에 든 량반》, 태권도시범출연, 민속놀이 《줄넘기》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참관자들은 기술전습, 기술봉사와 같은 교류를 통하여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비물질문화유산들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인식하였다.

대동강구역 둥라2동에 살고있는 정옥련녀성은 『전시회장에서 보낸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나는 우리 인민이 오랜 역사적기간에 걸쳐 창조하고 풍부히 발전시켜온 비물질문화유산들을 한자리에서 다 보고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우수한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고 하였다.

비물질문화유산전시회-2025는 인민들에게 우리의것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온 나라에 우리의 문화를 적극 장려하며 빛내여나가는 사회적풍조를 마련해준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글 연옥
사진 김강무



국경에 대한 자부심을 더해준 품평회



풍산개는 우리나라의 국견이다.

전형적인 사냥개의 특성을 가진 풍산개는 량강도 김형권군(이전의 풍산군)일대가 원산지이며 아주 령리하고 용감하기로 소문난 조선특산종이다.

풍산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을 따라 높아가는 속에 중앙동물원에서 지난 10월말 조선의 국견 풍산개품평회-2025가 진행되었다.

이번 품평회는 국가보호동물인 풍산개에 대한 등록조사와 순종평가를 진행하고 국견의 표준형태와 생물학적특성에 대한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여 순종마리수를 늘이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협회사업부부원 조영철은 품평회에는 평양시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온 수십마리의 풍산개들이 출품되었는데 지난 시기보다 우수한 개들이 많이 참가하였다고 하였다.

품평회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량강도 김형권군에서 온 전분선할머니는 이렇게 전국적인 범위에서 품평회가 진행되니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자기의 풍산개를 다른 지방의것들과

대비하여보면서 우결함을 알수 있어서 참으로 좋다고 하였다.

사리원시 상매2동에서 사는 김선숙은 자기가 사는 곳이 비록 풍산개의 원산지는 아니여도 순종마리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된다고, 그 나날에 풍부한 경험이 축적되고 필요한 기재들도 제작하게 되였다고 하였다.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국견을 적극 보호증식시키는데 바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국심을 느낄수 있었다.

평성수의 축산대학 일군들과 연구사들도 해당 성원들과의 련계밀에 풍산개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기 위한 연구를 수년간이나 해오는 과정에 풍산개의 몸질량을 늘이고 사양표준을 완성하여 올해에 국가품종등록증서를 받았다.

참관자들은 이번 품평회에서 진행된 특기심사를 통해서도 국견이 령리하고 이악하며 용맹하다는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였다고 하였다.

이번 품평회는 우리의 자랑인 풍산개를 적극 보호하고 국견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보다 높여준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글 진룡진, 사진 김평



고구려의 장수 부분노

부분노는 고구려 시기의 장수이다.

국가 성립 직후 고구려가 령역을 확장하는데서 큰 역할을 높았다.

그는 B.C. 272년(동명성왕 6년)에 오이와 함께 행인국을 치고 그 지역을 통합함으로써 고구려가 동남쪽으로 령토를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B.C. 249년에 고구려가 북쪽에 있던 선비족의 나라를 복속시키는데서도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때 그가 내놓은 전술에 따라 고구려 군은 적은 력량의 군사로 적을 성밖으로 유인한 다음 그가 거느리는 정예군사를 성안으로 돌입시켜 성을 점령하였다. 앞뒤로부터 고구려 군의 협공을 받은 선비족의 나라는 결국 투항하여 고구려의 속국으로 되었다.

왕은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의 활동은 고구려에 의한 소국 통합 과정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공로로 하여 동명왕릉을 평양으로 옮길 때 그의 무덤도 왕릉곁에 이설되었다고



동명왕릉앞에 세워진 부분노의 석상

인정되고 있다. 동명왕릉앞에 세워진 무관석상들 중의 하나로 그를 형상한 것이다.

글 및 사진 김영호

지
명
유
래

녕원군

녕원군은 평안남도 북동부 대동강 상류지대에 자리잡고 있는 군이다.

녕원일대는 고려(918년부터 1392년까지 존재하였던 우리나라의 봉건 국가) 시기 나라의 방위를 위한 요충지로서 비교적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는 고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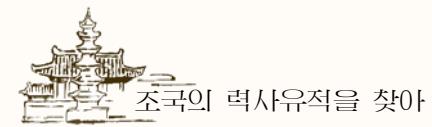
당시 이곳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진을 설치하고 그것을寧원진이라고 하였다. 그 후 영청, 영녕현으로 부르다가 15세기 중엽에 군을 나오면서寧원진의 이름을 살려 군 이름을寧원군이라고 하였다.

寧원군에서 《녕》자는 이 일대가 지형상 방위에 유리하며 편안하다는 뜻에서 쓴것이고 《원》자는 당시 고려의 수도 개경(지금의 개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에서 《멀 원》자를 쓴것이다. 즉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편안한 지대라는 뜻에서寧원군이라고 하였다.

寧원군은 북, 동, 남부가 1 000m 이상 되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산간지대이다.

군에는寧원진성 등 여러 력사 유적들이 있다.

* * *



거산성

거산성은 함경남도 북청군 평리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거산의 산마루에 자리잡고 있다. 해발 120m인 거산의 동쪽과 남쪽으로는 거산천이 흐르고 그 앞벌에는 고구려 시기부터 발해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정된 평리무덤떼가 있다.

조선동해가 가깝게 바라보이는 거산성의 기슭에는 예로부터 포구가 있었으며 거산성 근처에는 력대로 역참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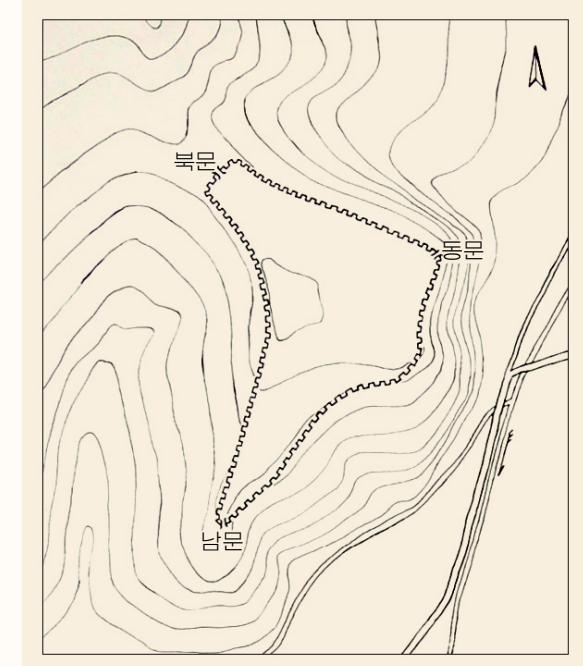
거산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청해토성터, 절골 유적을 비롯한 발해유적들이 있다.

거산성은 거산우에 평坦한 대지를 둘러막은 산봉식 성산이다.

성벽은 다듬은 돌로 쌓았는데 산경사가 완만한 서쪽부분은 양면축조방법으로, 산경사가 급한 북쪽과 동쪽부분은 외면축조방법으로 쌓았다. 성벽의 굽도리는 계단모양으로 되었다.

지금 남아있는 성벽의 높이는 약 4m이며 성의 둘레는 약 600m이다. 성문으로서는 남문터가 확인되었다. 이밖에 동문과 북문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안 산마루에서는 발해시기의 건물터와



우물터가 발견되었다. 이 건물터 밑에는 고구려 문화층이 깔려 있다.

글 및 사진 최은혁



서희장군의 대답한 외교전

수십만 적병이 삼엄하게 진을 치고 있는 침략군의 진중에 단신으로 들어가 담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다.

서희장군은 수십만의 외적이고려에 침입하였을 때 사생 결단하고 적진에 들어가 대답하고 능숙한 외교전을 벌려 적을 물리친 애국명장이다.

외적파의 담판이 제기되었을 때였다.

고려왕 성종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능히 적진에 가서 담판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만대의 공을 세우겠는가?》

좌중을 둘러보았으나 누구도 선뜻 대답하는 신하가 없었다.

이때 서희장군이 비장한 결의를 한듯 일어나서 말하였다.

《소신이 불민하나 삼가 왕명을 받들겠나이다. 어려운 때 충신은 죽고사는 것을 타산하지 않으며 어렵고 쉬운 일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였소이다.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시오이다.》

성종은 기뻐서 그의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바래주었다.

서희는 말을 타고 적장이 있는 군영으로 가면서 생각을 굴리였다.

(적장은 다른 나라의 군사들과 여러번 싸워 이겼으므로 쿄대가 높고 고집이 세겠지. 내 먼저 그자를 격동시켜 기세를 꺾어놓은 후에 담판에 릴 하리라.)

그가 예측한바와 같이 담판에 릴하는 적장의 태도는 오만무례하였다.

《나는 큰 나라의 대신이니 고려사신은 응당 뜰아래에서 절을 하여야 한다.》

《당하에서 절을 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나 하는것이요.

두 나라의 대신들이 대면하는 좌석에서는 그런 혜법이 있을수 없소.》

서희장군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적장이 오만무례하게 나올수록 장군은 더욱 강경하게 나왔다.

《그대가 임금의 자격으로 절을 받고싶어 하는것 같은데 임금이 되고싶어 하는구려. 이 소문이 당신네 임금에게 전해지면 무엄하고 외람된 노릇을 하였다는것으로써 무사하지 못할것 같소. 정 그런 인사를 받고 싶으면 임금이 된 다음에 오시구려. 지금은 담판을 걷어치우고 돌아가면 돌아갔지 결단코 그런 무례한 요구는 들어주지 못하겠소.》

서희장군은 최후통첩의 말을 던지고 숙소로 돌아와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적장은 서희의 비범한 인품과 사리정연한 말에 탄복하여 황급히 사람을 보내여 그가 요구하는 혜식 절차를 승낙한다는것을 전하였다.

고려대신의 체모를 지키려는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칼을 든 수많은 적병이 우글거리는 적진 중에서 취해진것이였다.

담판에서도 서희는 능란한 외교적수완을 보여주었다.

하여 7일간 격렬하게 진행된 담판은 고려의 승리로써 막을 내리였다.

* * *

세계자연공원

백두산자연 (4)

갓봉의 지질단면

갓봉은 쌍무지개봉과 향도봉 사이에서 향도봉쪽에 치우쳐 있으며 천지의 동쪽에 위치

하고 있다. 갓봉의 지질단면은 각이한 형식으로 분출된 화산분출물들이 일명 화산유리라고도 하는 검은색을 띤 유리질화산암인 흑요석이 섞인 류문암질암장의 흐름성분출산물을 하나의 단면상에서 보여주는 화산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지질유적이다.



백두다리계곡의 지질단면

백두다리계곡의 지질단면은 천년기대분출에 의해 부석이 쌓인 후 열운형식으로 분출하여 쌓인 흑색용결옹회암을 보여준다. 여기서 열운은 화산재가 화산가스속에 섞여있는 뜨거운 상태의 화산분출물이 뿐어나와 하늘을 뒤덮은 구름 모양을 의미한다.

이 지질단면에서 부석층의 두께는 장소에 따라 각이하게 나타나며 수m까지 달한다. 이 지질단면은 화산분출순서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곳 근방에는 매몰목도 나오는데 매몰목의 웃부분은 온도가 높은 분출물에 묻혀 탄화되었다.



백삼리벼랑

백삼리벼랑은 백두산형성 제1단계에 분출한 현무암질용암의 분출회수와 그 랭각과정에 형성된 주상절리를 보여주는 지질단면이다.

일반적으로 절리는 암장을 원천으로 하여 형성될 때 생긴 틈새를 말하는데 주상절리는 용암이 랭각수축되는 과정에 다각형 모양의 기둥들이 생기게 하는 틈을 말한다.

백삼리벼랑의 높이는 약 100m정도인데 여기에 10여개의 분출중단현상을 볼수 있다. 백삼리벼랑은 150여m의 구간에 로출되어있다.

보서리주상절리

보서리주상절리는 남포태산 방향의 백두산단렬대와 북남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북서 방향의 북포태산-곽사봉단열이



1호용암탑

1호용암탑은 장군봉으로부터 천지를 향하여 북서 방향으로 뻗어내린 비루봉줄기의 중간부분에 응장하고 기묘하게 솟아있는 비루봉이다. 밀부위의 둘레는 약 300m, 높이는 70m이다.

일반적으로 용암탑은 화도를 따라 흘러나오던 점성이 매우 높은 암장이 멀리 흐르지 못하고 굳어지거나 화도안에서 굳어진 원통모양의 분출암을 말한다.

1호용암탑은 백두산형성과정에 화도를 따라 올라오던 암장이 화도에서 식어 굳어진 화도암체가 천년기대 분출 후 백두산화산체가 함몰될 때 무너지지 않고 남은 대표적인 용암탑의 하나이다. 다공성각력상조면암과 광재암으로 이루어졌다.



교차하는 곳에 있는 용장봉화산체에서 나타난다. 화산체의 절벽에는 용암이 랭각되면서 형성된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보서리주상절리절벽의 너비는 800m정도이다.

조면영안암질암장의 다양 분출에 의해 형성된 화산체가 신기지체구조운동에 의해 주변 부분이 떨어져나가 현재와 같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게 되었다.

보서리주상절리는 조면영안암질용암의 랭각과정을 연구하는데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2호용암탑

2호용암탑은 1호용암탑에서 장군봉쪽으로 약 250m 떨어진 곳에 있는 화도암체로서 1호용암탑과 모양은 비슷하나 둘레의 길이와 높이는 작다.

이 용암탑도 백두산형성과정에 화도를 따라 올라오던 암장이 화도에서 식어 굳어진 화도암체가 천년기대 분출 후 백두산화산체가 함몰될 때 무너지지 않고 남은것이다. 조면암과 광재암으로 이루어졌다.

2호용암탑의 북동쪽절벽에서는 용암탑과 주변암석파의 경계가 명백히 나타난다.



3호용암탑

3호용암탑은 향도봉소분지안에 있는데 장군봉에서 북북동방향으로 2.3km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높이는 약 10m, 밀부위의 둘레는 20m정도이다.

이 용암탑은 암장이 화도를 따라 서서히 올라오면서 식어 굳어진 후 백두산화산체가 함몰될 때 무너지지 않고 남은 화도체이다.

3호용암탑의 가운데부분에는 흑요암과 갈색의 다공성조면류문암질각력암층이 엇바뀌여 나타나며 변두리에는 갈색과 흰색의 암석띠들이 미세하게 엇바뀌여 나타난다. 곳에 따라 줄무늬가 있는 각력상조미사장석질류문암도 나타난다.

이 용암탑의 벽에는 급랭되면서 생긴 석영의 미세한 립자나 결정의 집합체인 옥수질덩어리가 여러개 있다.

1호, 2호, 3호용암탑들은 신기화산지대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지질유적으로서 백두산화산특유의 자랑을 더해주고 있으며 화도와 화도암체연구, 방사상균렬연구에서 의의가 크다.



장기수풀이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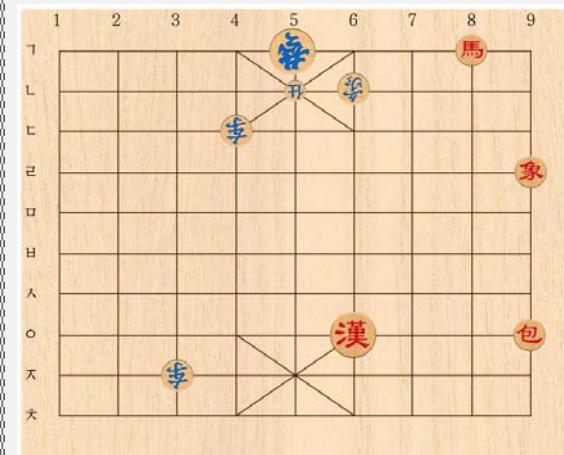
장기격언

선장훈 후수

이 말은 수를 쓸 때 될수록이면 장훈을 먼저 부르고 자기가 의도하는 수를 써야 함을 뜻하고 있다. 또한 이 말은 먼저 장훈을 불러야 수를 얻어 앞설수 있으며 따라서 자기는 유리하게, 상대방은 불리하게 형세를 몰아갈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장기수풀이 (35)에 대한 답

□4병□5, □5포□5, □9차□5, □5궁□5, □6포□6, □5궁□5, □7말□5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상식

조선식지붕

조선식지붕은 우리 나라의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때부터 여러가지 류형으로 있었다.

조선식지붕은 그 모양에 따라 배집지붕, 우진각지붕, 합각지붕과 모지붕, 특수형지붕 등으로 나눈다.

우리 선조들은 고구려때부터 두 곡선에 의한 지붕양식을 리용하였는데 이것은 5~6세기때 직선의 지붕양식을 리용한 중국과 네면 또는 량면에 급경사지붕이나

평지붕을 써운 동남아시아나 유럽의 집지붕양식과는 뚜렷이 구별되는것이다.

또한 조선식지붕은 물매가 독특하여 비가 많이 와도 비물이 빨리 흘러내려가도록 되어있다.

조선식지붕의 롱마루량끝에는 추두와 롱두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장식을 하였으며 추녀마루에는 여러가지 잡상을 놓았다. 기와도 장식기와를 많이 썼다.

민족건축형식인 우아한 조선식지붕의 조형적형상은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인민의 락천적인 생활감정과 슬기로운 기상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있다.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